

임진왜란 시기 『紀效新書』의 전래와 軍事上의 변화*

이조희**

〈차 례〉

1. 머리말
2. 『기효신서』와 그 전래
3. 군사 체제 및 훈련 내용의 변화
4. 16세기 전후 조선의 兵書 편찬
5. 맺음말

[국문초록]

『기효신서』는 명대에 편찬된 兵書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광범위하며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실용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당대를 넘어, 이후에도 폭넓게 활용되어 軍事史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조선군과 함께 전투하였던 명군은 『기효신서』를 바탕으로 훈련도감에서 조선군의 훈련을 도왔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조선군은 새로운 훈련과정을 도입하여 군제를 바꾸어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로 조선 사회에 만연하였던 崇文抑武의 풍조에도 변화가 생겼다. 임진왜란 이후, 『기효신서』의 체제와 내용을 모방하여 兵서를 편찬·발행하였고 특히 『陣說』, 『兵學通』, 『兵學指南』 등의 兵서가 간행되어 인쇄된 횟수로 미루어 보았을 때, 『기효신서』가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효신서』의 전래는 임진왜란을 통해 일어난 일종의 문화적 교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전래 이후 조선 내부에서 끊임없이 활용하여 조선의 문화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임진왜란을 거치며 당시 한·중·일 사이에는 많은 교류가 있었을 것이므로, 각국 간의 교류를 통해 얻은 것을 자국 문화로 소화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연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기효신서』, 조선, 명나라, 兵서, 교류

* 이 논문은 연변대학의 “一流學科研究生科研創新項目”의 성과물이다. [本文爲延邊大學“一流學科研究生科研創新項目”(20190010)階段性成果.]

** 李兆曦, 중국 延邊大學 人文社會科學學院 역사학과(세계사 전공) 박사 과정

1. 머리말

16세기 倭寇 토벌에 큰 공을 세운 戚繼光이 집필한 『紀效新書』는 왜구 토벌과정에서의 실전 용병 경험을 망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군의 군사훈련 및 작전상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병서이다. 또한 실천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며, 火器가 발전하면서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당시 명군의 화기사용 수준을 알 수 있어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 책은 임진왜란을 거치며 조선에 전해졌는데, 당시 명군은 작전 수행에 있어서 『기효신서』의 내용을 응용하여 큰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며, 훈련도감에서는 『기효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이 편성한 병사들을 훈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기효신서』의 전래는 동시에 조선의 병서 편찬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임진왜란을 거치며 문화교류가 일어났고, 수용한 문화를 변용, 발전시켜 자국의 것으로 만든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그러나 한중 학계에서 『기효신서』에 대한 연구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기효신서』에 수록된 군대의 진형과 무예 기술에 편 중되어있고, 일부 『기효신서』가 끼쳤던 영향에 관한 연구도 존재한다. 먼저, 중국학계의 연구를 살펴보면 孫衛國의 『〈紀效新書〉與朝鮮王朝軍制改革』를 대표 연구로 들 수 있겠다. 孫衛國은 이 논문에서 기존의 중국학계에서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기효신서』가 조선왕조의 군사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이는 중국학계에서 처음으로 『기효신서』에 대해 진행한 심도 있는 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다음으로 祁山은 『〈紀效新書〉傳入朝鮮半島的背景及影響』에서 당시 명에서의 『기효신서』의 위상과 『기효신서』가 조선에 전파되었던 배경과 영향에 관해 소개하였는데, 이 글은 비교적 분량이 짧아 개략적인 내용만 파악할 수 있어 다소 아쉬움이 있다. 또, 楊海英은 『朝鮮王朝軍隊的中國訓練師』에서 척계광과 그의 저작인 『기효신서』가 조선군에 끼쳤던 영향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으로 파병되었던 명나라 장수와 병사가 『기효신서』를 교제

로 조선군에게 새로운 병기의 사용법과 진법을 교육하였고, 이것은 최후에 조선군이 일본군을 진압하는 기반이 되었음을 밝혔다.¹⁾ 한국학계는 중국학계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기효신서』가 조선의 군사 각 분야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학계의 주요 연구로 노영구의 『선조대 기효신서의 보급과 진법논의』와 『임진왜란 이후 전법의 추이와 무예서의 간행』, 김성수의 『한국 군사류 전적의 발전계보에 관한 서지적 연구』, 윤병태의 『조선시대의 병서 간행』, 윤용출의 『임진왜란 시기 군역제의 동요와 개편』 등을 들 수 있다.²⁾

이상 기존의 연구성과를 종합하여볼 때, 중국학계의 경우 『기효신서』로 인해 조선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제고되었다는 점과 군사제도가 개혁되었다는 부분만을 강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병서 자체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요 연구의 경우 역시 『기효신서』가 조선의 군제에만 끼쳤던 영향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대목은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기효신서』 전래 이후의 문화적인 분야에서의 변화에 대한 더욱 세밀하고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반면 한국학계의 경우 『기효신서』를 비롯하여 병서 자체에 관한 연구성과는 다소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기효신서』에 나타나 있는 진법의 사용과 전파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외에 조선 시대에 편찬된 병서에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어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기효신서』를 받아들이고 나서, 조선이 병서를 편찬하였던 과정의 인과성에 대한 정확한 서술은 부족하다.

물론 두 나라 학계의 연구 목적과 시각의 차이로 인하여 여전히 『기효신서』가 조선에 전파되고 수용 및 활용한 점에 대하여 엇갈리는 견해가 존재하지만, 조선의 군사제도와 군사문화에 관한 연구에 진일보한 결과를 내기 위해

1) 孫衛國, 『紀效新書與朝鮮王朝軍制改革』, 『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期, 2018; 卮山, 『紀效新書傳入朝鮮半島的背景及影響』, 『山東青年政治學院學報』 第5期, 2013; 楊海英·任幸芳, 『朝鮮王朝軍隊的中國訓練師』, 『中國史研究』 第3期, 2013.

2) 노영구, 『선조대 기효신서의 보급과 진법논의』, 『軍史』 34, 1997; 노영구, 『임진왜란 이후 전법의 추이와 무예서의 간행』, 『한국문화』 27, 2001; 김성수·김영일, 『한국 군사류 전적의 발전계보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9, 1993; 윤병태, 『조선시대의 병서 간행』, 『軍史』 8, 1984; 윤용출, 『임진왜란 시기 군역제의 동요와 개편』, 『釜大史學』 13, 1989.

서는 『기효신서』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학자의 시선으로 『기효신서』가 조선에 전래된 과정을 살피고 『기효신서』가 당시 조선에 끼쳤던 영향에 대해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2. 『기효신서』와 그 전래

왜구 토벌에 큰 공을 세웠던 척계광은 중국 군사사상 지대한 업적을 남긴 군인인 동시에 서예가이자 시인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군인으로서의 척계광은 왜구 토벌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겼다. 1560년 그는 직접 왜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治兵의 이념과 병사들의 훈련 방법들을 자세하게 적은 병법서인 『기효신서』를 완성하였다. 또한, 『기효신서』는 척계광이 당시 동남 연해 지방에서 왜구를 토벌할 당시 실전에서 병사를 훈련하고 작전을 지휘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군대 훈련을 위해 만든 條目과 군중의 각종 조례 및 작전지휘와 관련된 사항 역시 자세하게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척계광이 왜구 토벌을 위해 부임하였을 당시, 명군의 전투력으로 왜구에 대항하는 일은 역부족이었다. 이에 그는 부패가 만연하였던 浙兵을 개혁하기 위하여 새로이 병영을 건설하고 병사를 가려 뽑아 훈련하여 군대를 재편성하였다. 그가 특히 강조하였던 것은 군기였는데 그 내용은 『기효신서』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본분을 바르게 세우는 것으로, 衛所에서 지휘를 통하여 병사를 질서 있게 정돈하면 위소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하가 모두 힘쓰게 될 것이다. 둘째는 탐관오리를 잡아들여 장기간 피폐해진 병사들을 일깨워 사기를 북돋우는 것이다. 셋째는 교활한 군관을 엄중하게 다스려 위소의 군관들이 능히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넷째는 군 내부에서 체계를 뛰어넘어 결재받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인장이 없는 문서 역시 제출을 금하게 하여 군의 政令을 엄히 바로 잡는 것이다. 다섯째는 전군에 충의를 다할 것을 강조하고, 진중의 병사 가운데 다치거나

몸을 못 쓰게 된 자들을 돌보이주어 가족들을 위로해주어야 한다. 여섯째는 호구를 확실하게 점검하여 빠짐없이 역의 의무를 질 수 있게 하여 그것으로 예비병력을 양성한다.³⁾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척계광은 군기를 엄정히 세우고 위계를 바로잡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군대에 해를 끼치는 각종 사항을 금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여, 부대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러면서도 척계광은 “만약 위엄만을 내세운다면 군사들과 원한이 쌓여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며, 적절한 포상 없이 혼란만 하고 관리한다면 장수와 군사 간에 대립이 일어나 결코 상하가 일심 단결하여 국가를 위해 전쟁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며, 군대는 法理와 情理가 결합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恩威를 바탕으로 온정과 위엄이 서로 융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엄중하게 다스려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로 삼고자 하였는데,⁴⁾ 이 또한 척계광이 위계와 규율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척계광은 江蘇, 浙江의 동부 연해 지방에서 여러 해 동안 군사를 지휘하고 훈련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병법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병법에서는 군사들이 평소 훈련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있었다. 이에 척계광은 훈련·학습할 과목을 수집하여 苗族 가운데 병사를 가려 선발하여 號令, 戰法, 行營, 武藝, 守哨, 水戰 등 실전에서 유용하고 쓰일 수 있는 실용적인 과목을 바탕으로 하여 훈련을 진행할 것을 장려하면서, 척계광 본인의 왜구 토벌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 『기효신서』가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⁵⁾ 척계광은 『기효신서』 自序에서 “많은 병서와 병법이 이론에 대하여 심오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전쟁

3) 戚繼光, 『紀效新書(18卷本)』, 北京:中華書局, 2001, 10쪽.

4) 戚繼光, 앞의 책, 23쪽.

5) 戚繼光, 앞의 책, 2쪽.

터에서는 응용하기는 어려워 군에서 필수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내용을 모아 병력을 전문적으로 훈련 시키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이렇게 편찬된 『기효신서』는 명의 군대와 병사들의 기본 소양을 높이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는데, “절강에는 『기효신서』, 薊에는 『연병실기』가 있어서, 병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지침서로 받들어 전범으로 삼는다”⁶⁾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이렇듯 척계광의 병서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명대 군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효신서』는 왜구 토벌 작전을 통해서 입증되었던 용병 및 부대와 진의 배치, 부대와 진을 구축하는 방법, 기본 소양에 따른 병사의 선발과 훈련 등 군 전투력 상승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명군의 실력 상승에 현실적으로 이바지하였다.

고금을 참작하여 살펴보면, 소보 척계광의 兵略이 있어 대부 郭應響이 침사하여 군사 문제의 부수적인 일마저 손금을 보듯 흰히 꿰뚫어 볼 수 있으니 지금의 어떤 군사전략이 이보다 나은 것이 있겠는가? 누가 천배, 백배라 할 수 있는가? 손무자보다 못한다고 할 수 있는가? 천하가 이 책으로부터 평정되길 바랄 뿐이다.⁷⁾

위 사료를 통해서도 당시 명군의 상하 모두가 『기효신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열심히 학습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결국 『기효신서』의 등장은 단순히 당대 명군의 재건과 전략 전술 능력 향상에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이후 중국 군사제도의 재정립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효신서』는 이후 임진왜란을 거치며 조선으로 유입되어 조선에도 대단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은 일본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조선의 육군은 연패를 거듭하였다. 이에 선조와 심희수, 유성룡은 전장의 지형 및 정세를 분석하였고, 예상과는 달리 강력한 일본군의 전투

6) 郭應響, 「序」, 『補釋戚少保南北兵法要略』, 曆史追學網, <http://lishi.zhuixue.net/>

7) 洪承疇, 「序」, 『古今平定略』, 曆史追學網, <http://lishi.zhuixue.net/>

력에 조선군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⁸⁾ 비록 관군과 더불어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적극적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진행하였지만, 그것만으로 일본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조선군은 오랜 기간 실전 경험을 쌓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상적인 부대 관리와 훈련에 소홀하였으며 국방 의식 역시 빈약하였다. 전국시대를 거치며 실전 경험을 충분히 쌓아온 일본군의 강력한 공세 앞에, 건국 이후 줄곧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오며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없었던 조선군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조선에서는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전쟁 초기부터 명나라에 파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명은 쉽게 파병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거듭 명 조정에 파병을 촉구하여, 마침내 명 조정에서도 종주국의 의무를 다하는 한편, 자신들의 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선으로의 출병을 결정하였다. 이후 명은 총병력 14만여 명의 규모로 구성된 구원 병력을 즉각 조선으로 파병하였다. 기왕의 연구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명의 참전은 단순히 보자면 일본군의 침략에 대응하고 조선을 구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이었지만, 명군이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여러 문물과 銀은 이후 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조선 사회의 큰 변화를 유발하기도 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기효신서』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명군으로부터 조선에 전래 되었다.

상술하였듯이 조선은 건국 이후 200년 가까이 태평성세를 누려왔기 때문에, 국방 체제를 비롯한 각종 군사제도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임진왜란 발발 9년 전이었던 1583년(선조 16)에도, 이이는 선조를 찾아가 “나라가 태평하니 군사와 식량이 준비되지 않아 적이 침범해 와도 막아낼 수 없다”라고 하며 당시 조선의 국방에 큰 우려를 표하며 이른바 “십만양병설”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개전 이후, 『기효신서』의 전래는 새로운 군사제도 및 군사 관련 문화를 양성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8) 『宣祖實錄』 권43, 선조 26년 10월 22일(壬寅).

3. 군사 체제 및 훈련 내용의 변화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명군의 참전은 조선의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훈련도감의 설치와 『기효신서』의 전래는 군사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 본래 조선군은 궁수를 중심으로 군사 체제를 편제하여서, 대부분의 훈련 역시 당시 군사 편제에 맞게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효신서』 전래 이후, 조선은 명군의 주선을 통해 기존까지 해오던 군사훈련 내용에 변화를 주고, 군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큰 기대감을 품고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훈련도감에서는 『기효신서』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맞추어 훈련 내용을 꾸리는 한편, 『기효신서』에 대한 문헌 연구 또한 진행하였다. 조선군의 훈련을 도울 명군 장수들은 새로 편성한 조선의 훈련에 『기효신서』의 내용을 적용하여, 조선군의 내실을 다지고 전투력의 상승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효신서』는 훈련도감의 필수교재가 되면서, 조선 사회에서 그 지위 역시 올라가게 되었다.

훈련도감 제조가 아뢰기를, “훈련 절목은 『기효신서』란 책에 지극히 자세하고도 세밀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지금 일체를 그대로 본떠야 합니다. 다만 그 책의 글과 器械의 명칭에 알기 어려운 데가 있으니 이번에 중국군이 아직 돌아가기 전에 충민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방면으로 따지고 질문하게 하여 환히 의심스러운 데가 없게 된 다음에야 훈련하여 익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⁹⁾

위 기록처럼 조선은 『기효신서』에 상세히 기재된 군사훈련의 방법에 따라 군대를 훈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책에 기재된 많은 무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 조선은 ‘충민한 자들을 뽑아 학습시키고 연구하여 조선군의 훈련에 응용’하고자 하였다. 결국 조선은 병서 연구에서부터 훈련도감에 의한 일상적인

9) 『宣祖實錄』 권43, 선조 26년 10월 6일(丙戌).

군사훈련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기효신서』를 이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명군은 『기효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내용을 실전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선군의 전투력에 큰 우려를 표하면서, 『기효신서』를 바탕으로 조선군의 전투력을 상승시켜 일정한 역할을 분담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조선에서는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당시 실정에 맞게 병종을 살수, 포수, 사수의 三手로 나누었으며, 화기를 비롯한 각종 병기를 익힐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원양진과 같은 진법 학습에도 열을 올리며, 일본군과의 전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조선 사회를 장악하였던 文을 숭상하고 武를 경시하는 경향은 쉽게 바뀔 수 없는 것이었다.¹⁰⁾ 무예를 익히는 것을 천시하자 무장이 되고자 하였던 이들은 종군하려 하지 않았다. 이미 군인이 된 병사 역시 스스로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점차 태만해져 결국 훈련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선 조정에서는 무를 경시하는 경향이 적폐가 되어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깨달았다.¹¹⁾ 이렇듯 조선은 장기간 유지되어온 崇文抑武의 치국이념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국방정책을 실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훈련 역시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은 위기를 모면할 수 없었다.

결국 선조는 무를 중시하지는 명군의 제안에 중요성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선조는 건국 이래로 유지되어 온 文을 중시하는 치국이념으로 인하여 국방 의식이 해이해지고 군기 또한 무너졌음을 이해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병사와 물자를 확보하여도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¹²⁾ 또한, 훈련이 시작되어도 조정의 일각에서는 여전히 무예를 연습하고 병사를 훈련 시키는 일은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병조판서 이덕형은 이러한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계속하여 병사를

10) 『宣祖實錄』 권45, 선조 26년 윤11월 2일(壬午)

11) 『宣祖實錄』 권45, 선조 26년 윤11월 2일(壬午).

12) 『宣祖實錄』 권43, 선조 26년 10월 22일(壬寅).

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초로 조총을 도입하여 훈련을 시작하였을 때 도 많은 사람이 조총을 배우고 익히는 게 어려워 훈련을 경시하였고 심지어 무예를 익히는 것을 천시하여 도망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무과에 새로운 훈련방식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하여 지원자들이 새로운 훈련방식을 익힐 것을 장려하였다. 마침내, 『기효신서』에서 제시하는 모델과 부합하는 사람에게 는 별도의 상을 내리기도 하자 양반들까지 나서서 『기효신서』 학습에 매달 리면서 그 폐단을 고칠 수 있었다.¹³⁾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새로운 방식의 훈련을 도입하자 많은 사람이 훈련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따라서 조선 조정에서는 『기효신서』에서 언급한 은위를 동시에 갖추라는 원칙을 참고하여 상훈을 내릴 준비를 하고 과거시험 과목으로 편성하는 등, 실제적인 훈련을 실행하기 이전에, 병사들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조선 조정과 조선군은 스스로가 먼저 변화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게 되었고, 이는 후일 조선군의 훈련 체계를 정비하고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러므로 『기효신서』에도 ‘여러 사람을 교련할 적에 경각간에 이에 대한 事目を 완성하면 힘이 두루 미치지 못하게 되니 차라리 작은 교련 체제를 갖추고 친절하게 가르치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가령 5명이 있으면 당연히 5명을 가지고 조련해야 하고 10명이 있으면 10명을 가지고 조련해야 하는 것이니 이처럼 미루어 나간다면 아무리 수백 수천의 숫자로 불어나더라도 적용하는 방법은 똑같은 것입니다. …(중략)… 이렇게 때문에 『신서』에는 또 連坐法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1伍의 군대가 정예롭지 못하거나 기계가 鈍弊 되었거나 호령이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으면 군졸과 오장을 함께 다스리고, 1초가 그러하면 초관과 대장을 함께 다스립니다. 그 법이 마치 그물코가 버리에 달려있고 나뭇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과 같아서, 초관·대장·오장 등이 제각기 마음을 다하여 자기 소속을 조종하면서 밤낮없이

13) 『宣祖實錄』 권48, 선조 27년 2월 11일(庚申).

마음을 가다듬어 용렬한 자는 도태시키고 미숙한 자는 숙달시켜 나간다면 몇 달 사이에 정예롭지 않은 군대가 없게 될 것입니다. …(중략)… 우리나라는 전부터 군대 조련의 규모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가 지금에야 다행히 중국 장수로부터 조련 법을 전수받게 되었고, 또 兵曹가 적극 뜻을 다하여 점점 성취시켜 자못 불만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¹⁴⁾

위 기록은 훈련도감에서 군대 교련에 대하여 아뢴 내용인데, 이 기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나타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 기사에서는 ‘왜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다급하게 많은 군사를 모아 훈련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훈련을 거치지 못한다면 아무리 병사가 많아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훈련도감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기효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규모로 내실 있게 훈련을 진행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훈련하는 병사 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미 군을 소규모로 편성할 경우, 훈련상황을 쉽게 파악하고 군기를 확립할 수 있다는 『기효신서』의 문구를 알고 있었던 명군은 조선군의 문제점이었던 군기와 진행의 혼란과 방만, 훈련의 태만, 무질서를 쉽게 파악하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조선군에게 엄정한 군기를 갖출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연좌제를 도입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연좌제는 실제로 조선군의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고, 엄격한 군기와 책임을 중요시하는 제도적 특성은 병사들의 작전 능력과 전반적인 자질 향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기사에서는 연좌제의 적용을 위하여 군사 편제 역시 『기효신서』에서 제시한, 哨, 隊, 伍의 단계로 병사를 편제하고 관리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연좌제의 제도적 특성상 만약 한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혹은 나태하여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부대단위 전체가 잘못을 책임져야 하므로 절대 태만하게 행동할 수 없게 된다. 초관,

14) 『宣祖實錄』 권50, 선조 27년 4월 11일(己未).

대장, 오장 등의 지휘관들도 병사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 지휘관 역시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병사들을 더욱 엄히 감독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병사들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고 정신 수련을 하고 난 뒤 훈련을 한다면 정예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살필 수 있는 내용은 중국 장수로부터 훈련을 받고 난 뒤, 군세가 자못 불만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당시 명의 장수들은 『기효신서』의 이론을 바탕으로 훈련도감에서 조선군을 훈련하였다. 따라서 훈련의 교본이 되었던 『기효신서』가 조선군에 미친 영향은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훈련도감의 이 썩가 있기 전에, 承文院에서는 포수를 모아 훈련한 명의 천총 邵應忠이 “조선의 포수를 모아, 진법을 가르치는 등 노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대포를 쏘고 진을 바꾸는 것 일체를 『기효신서』의 내용에 근거”였다¹⁵⁾는 내용과 더불어 “그 공을 치하할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¹⁵⁾ 연좌제 역시, 『선조실록』에 兵曹에서 금군의 지휘체계를 세울 것을 청한 썩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금군이 문란하여 계통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매 12명으로 隊로 삼고, 3개의 대에 旗總 1인을 두고, 3개의 기총에 哨官을 하나 두어 윤번제로 入直하게 하자”고 하였으며, “잘못이 있을 경우, 『기효신서』의 연좌율을 적용”하자는 형태로 나타났다.¹⁶⁾ 兵曹에서 기존에 흐트러졌던 금군의 隊伍를 12명씩 1대로 하는 편제로 만들어 정비하자고 한 것은, 척계광이 창안한 원양진의 기본적인 대형과 같은 것으로 이 법에 따라 연습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변란 뒤에 상계서 가르치지 않은 백성을 사용하여 전쟁을 하게 하면 백성을 죽음의 구렁에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근심하여 精壯한 자를 모집하여 관사(官司)를 설치해서 교육·훈련시키되 柳成龍, 李德馨이 이를 주관하도록 하고 또 중국인 교관을 청해다가 가르쳤는데, 대개 가르치는 방법은 중국의 명장 척계광이 지은 『기

15) 『宣祖實錄』 권46, 선조 26년 12월 24일(癸酉).

16) 『宣祖實錄』 권49, 선조 27년 3월 24일(壬寅).

효신서』이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조련시킨 자가 지금까지 3년인데 군량이 부족할까 근심하여 禦膳을 줄여서 공급하고, 해를 지낼 방법이 없을까 걱정하여 宮内の 저장을 내어 나누어 주었다. 열흘에 한 번씩 시재試才하고 한 달에 여섯 차례씩 사열하여 다섯 가지 技法이 이미 익숙해지고 파리하고 약한 사람이 용맹해져서 정연하고 당당하며 東伍가 분명하고 哨隊의 질서가 있어서 緩急에 사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일처럼 소문만 듣고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¹⁷⁾

임진왜란이 발발한 뒤 전투에서 줄곧 위기를 겪어왔던 조선은 명군 참전 이후, 전황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위 기록에서도 드러나듯이 『기효신서』 전래는 조선군이 새로운 군사이론을 습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게다가 조정에서도 병사들을 위한 지출을 늘려가면서 조선군은 점차 대오를 갖추었고 군기를 확립해나가며 마침내 군대다운 군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조선군은 새로운 면모를 갖추며 점차 실력을 높여갔다. 실패한 전투를 통해 반추하며 익숙하지 않은 전술과 병기 사용에 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전까지 소홀히 하였던 단병접전에 대한 훈련도 바로 그 예였다. 이로써 조선군은 이론과 실전경험을 통해 새롭게 무장해나갔으며, 군사제도와 훈련 역시 점차 실용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뀌어 갔다. 차츰 부대가 자리를 잡고 군사 전력이 증강되어감에 따라 조선은 효과적인 부대 건설과 운용, 국방력 강화 등에 크게 관심을 두게 되었다. 백성들 또한 군대의 전투력과 국방력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기효신서』 학습을 통해 군대의 전투력이 효과적으로 향상되자 자연스럽게 『기효신서』를 배우는 일 또한 인기를 끌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책이 관민의 무예 학습 정서를 북돋웠다는 점이다. 먼저 군대를 기점으로 『기효신서』를 훈련에 적용하고 점차 확대해나가자 많은 인원이 병서를 학습하고자 하였다. 물론 모두가 배운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을지라도 병서를 익히는 추세는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기효신서』가 조선군의 초급 군관을 교육하는 데

17) 『宣祖實錄』 권67, 선조 28년 9월 10일(己卯).

중요한 교재로 쓰였다는 것과 아직 실전에 배치되지 않은 비전투 인원이 『기효신서』 배우기를 자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¹⁸⁾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 사회에서 『기효신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하였듯 조선은 건국 이후 유학을 중시하여 문관이 중심이 되어 국정을 이끌었다. 이에 병법을 학습하는 일은 경시되어왔고 무관들 역시 그 중요함과는 다르게 무시되어왔다. 자연스럽게 조선의 국방 의식 역시 약화 되면서, 임진왜란 개전 초기 조선은 연전연패하였다. 그러나 『기효신서』의 전래 이후, 이 책을 수용하면서 조선은 병법과 무예를 다시 중시하게 되었으며, 무를 학습하려는 사람이 많아져 조선군의 전투력이 올라갔으며, 국방 의식 역시 제고되었다. 또한 병법 습득과 무예 연마에만 영향을 준 것을 넘어서 병서의 간행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3. 16세기 전후 조선의 兵書 편찬

조선 초기, 평화가 계속되자 군대의 훈련과 전투력 향상에 소홀해지고 군사문화 발전에도 관심이 없어 병서 편찬과 간행 역시 드물었다. 그러나 군사 훈련에 『기효신서』를 적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자, 조선은 마침내 『기효신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훈련도감은 일상적인 군사훈련을 담당하는 업무 이외에도 『기효신서』의 내용을 분류하여 책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편집하는 업무에 착수하고자 하였다.¹⁹⁾ 명군에 의해 전파된 『기효신서』는 이처럼 조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선의 병서 발전 및 생산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었다.

18) 『宣祖實錄』 권64, 선조 28년 6월 4일(乙巳).

19) 『宣祖實錄』 권64, 선조 28년 6월 13일(甲寅).

[표1] 임진왜란 전후(1392~1800)의 분야별 병서 현황 및 간행회수

대분류		전기(1392~1592)	후기(1593~1800)
군사이론과 훈련	조선 내부 편찬	3本	10本
	중국 병서의 주해	2本	3本
	『기효신서』와 직접 연관	-	7本
	항목별 총 간행회수	8次	32次
소계		5本 8次	20本 32次
병기와 군사기술	조선 내부 편찬	-	4本
	중국 병서의 주해	-	-
	『기효신서』와 직접 연관	-	-
	항목별 총 간행회수	-	5次
소계		0本 0次	4本 5次
전쟁사 기록	조선 내부 편찬	2本	4本
	중국 병서의 주해	-	-
	『기효신서』와 직접 연관	-	-
	항목별 총 간행회수	2次	6次
소계		2本 2次	4本 6次
총계		7本 10次	28本 43次

전술하였듯이 조선은 임진왜란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1392~1592) 동안 重文輕武의 치국이념으로 군사문화 발전에 현저한 한계가 있었는데, 이것은 병서의 내용과 종류가 단조롭고 결핍된 것에서 기인했다. [표1]에 따르면 건국 이후 임진왜란 발발 전까지 조선에서 간행된 병서는 7권 밖에 없었다. 특히 군사이론과 훈련에 관련된 서적은 총 5권이 편찬되었는데, 『陣法』,²⁰⁾ 『武經七書註解』,²¹⁾ 『禦製兵將說』,²²⁾ 『兵將說』,²³⁾ 『六韜直解』²⁴⁾ 등 5권이 바로

20) 『陣法』은 1451년 초반에 간행되었으며, 文宗의 명으로 편찬되었다. 군대의 편제, 전술, 지휘통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역대 병서의 내용을 보충하여 서술했다. 군사이론, 군사훈련을 다루고 있는 서적으로, 조선이 최초로 편찬한 병서라 할 수 있다.

21) 『武經七書註解』는 1452년에 조선 세종대에 중국 고대 7권의 병서의 전술, 전략사상에 대해 주해하여 만든 책이다. 무경7서는 『孫子』, 『吳子』, 『司馬法』, 『尉繚子』, 『三略』, 『六韜』, 『李衛公論對』 등이

그것이다. 이중 스스로 편찬한 것이 3권이었고, 2권은 중국 고대 병서의 주해였다. 물론 이 5권의 병서가 조선 초기 군사문화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더라도 일국의 국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량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전쟁사에 관한 기록 역시 겨우 2권을 편찬한 것에 그쳤고, 심지어 병기와 군사기술 관련 서적은 전무 하였다. 실제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조선의 병서는 양과 종류가 다양하지 못했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조선군은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임진왜란 발발 이후, 200년(1593~1800) 동안의 상황은 앞선 200년과는 확연하게 달랐다. 『기효신서』가 조선군에 응용되기 시작하자 조선은 병서 편찬과 자료를 모으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 이 시기에 총 28권의 책이 편찬되었으며 각 병서의 총 간행회수를 합치면 43회에 이르렀다. 결국 『기효신서』의 전래는 조선의 병서 간행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었다.

명군이 『기효신서』를 바탕으로 조선군의 훈련을 돕고 나서, 전장에서 그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던 조선군은 효과적인 훈련과 부대 관리를 위해서 체계와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여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임진왜란 이후 전투력 향상 및 군관의 전반적인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군사이론과 훈련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병서를 편찬하였다. 조선이 편찬한 이 병서들은 『기효신서』의 체제와 내용을 모방하거나 중국 고대의 병서를 주해하고 정리한 것이었다. 그중 『기효신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군사이론 및 훈련에 관한 병서는 『武藝諸譜』, 『練兵指南』, 『武藝新譜』, 『陣說』, 『紀效新書節要』, 『兵學通』, 『兵學指南』 등 7권으로 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예제보』는 훈련도감의 낭관 韓嶠가 1598년 간행한 것으로, 이 책

다. 이 7권의 병서는 중국 고대의 풍부한 전략, 전술을 담고 있는 병서로 송대 神宗시기에 병법연구의 필독서가 되었으며, 명초에 武官의 시험과목이 되었다.

- 22) 『禦制兵將說』은 조선의 세조의 명령으로 병법, 전술을 주된 내용으로 편찬된 군사훈련서이다. 1462년에 1차 간행되었다.
- 23) 『兵將說』은 1466년에 세조가 편찬한 병법서이다. 병법, 전술을 주 내용으로 한 군사훈련서로 세조가 편찬한 『禦制兵將說』에 주해와 증보한 것이다.
- 24) 『六韜直解』은 1574년에 조선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은 명대 劉寅이 중국의 병서인 『六韜』를 기반으로 주해하여 편찬한 책으로 전술, 전략과 군사사상이 주된 내용이다.

에는 명대 군사들이 사용한 각종 단병 무기의 사용법을 정리한 “12技”라는 圖譜가 있다. 당시 명군의 병기는 매우 다양하였는데,²⁵⁾ 전통적으로 활쏘기를 중시하였던 조선군은 사용법을 몰랐기 때문에 전장에서 적절히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조선의 무관들은 임진왜란 당시 많은 단병접전을 겪고 나서는 육박전에 쓰이는 각종 병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지하였다. 결국 조선의 무관들은 훈련도감이 설치된 후에야 명군의 다양한 병기를 살펴보고 사용법을 익힐 수 있게 되었고, 이후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무예제보』다.

『연병지남』 역시 한교가 편찬한 것으로, 진법훈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병서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진법은 명군을 통해 새로 익힌 것들이며, 戰車와 같은 병기 제작법을 기록해 둔 것은 특기할만하다. 또한, 당시 조선이 명군의 진법을 학습한 실태와 성과를 기록한 내용이 이 책에 남겨져 있어 17세기 조선군의 농병 제도와 진법훈련을 이해하는데 주목할만한 자료이다.

『무예신보』는 『무예제보』와 마찬가지로 근접전 훈련을 위하여 편찬된 병서로, 기왕에 간행되었던 병서에서 언급하였던 근접전 기술을 집대성하고 있다. 이 책은 『기효신서』에서 6技, 『무예제보』에서 12技의 도보를 모아 총 18技의 도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로 『무예제보』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진설』은 역대 병법가의 진법과 행군에 관련된 이론을 집약한 것으로 韓孝純이 편찬하였다. 이 책의 편찬과 간행은 『기효신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이 발발 이전, 조선군은 전투의 진법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이 지시되는 훈령에 따라 싸웠으며 활쏘기를 위주로 하였다. 이러한 운용은 여진족과의 전투에서는 우위를 나타냈지만, 일본군과의 전투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결국 『기효신서』에 나와 있는 진법을 연구한 뒤, 『진설』은 1603년에 간행되었는데 이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기

25) 『宣祖實錄』, 선조 26년 4월 12일(丙申).

효신서』의 이론을 근거로 스스로 편찬한 서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기효신서절요』는 『기효신서』에서 조선에 실정에 부합하는 대왜구전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아 엮은 것으로 출간 이후 조선의 군제 개편에 참고서가 되었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전에 주로 騎射에 능하였던 여진과 주로 충돌하였는데, 조선군 역시 궁수 위주의 편성으로 여진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발발 이후 이러한 궁수 위주의 편성은 화기로 무장하였던 일본군과의 전투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어송이 평양을 수복한 뒤, 조명연 합군은 『기효신서』에서 제시한 南方戰法을 이해하고 일본군에 대항하였다.

『병학통』은 1776년 張志恒이 정조의 명을 받아 『기효신서』의 체제와 내용에 근거하여 지은 병서로, 이 책의 완성은 간접적으로나마 조선이 國情과 軍情에 부합하는 군사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또한 직업 군인에 대한 기준과 직업군인이 준수해야 할 규칙, 진법의 체계적 분류와 해설을 포함하여 군사훈련의 전범이 되는 책이기도 하였다.

『병학지남』은 조선의 군사제도 개혁에 큰 영향을 미친 서적이었다. 이 책은 『기효신서』를 정본으로 하여, 『기효신서』 중 「操練法」 부분을 따로 발췌하여 책으로 만든 것이다. 이는 『기효신서』가 조선에서 응용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7권을 제외하고, 임진왜란 이후 200년간 군사이론과 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서는 13권이 더 간행되었다. 그중 『武經總要』,²⁶⁾ 『武經直解』,²⁷⁾ 『壇究捷錄』²⁸⁾ 등 중국 병서를 주해한 3권 이외에 나머지 10권의 병서는 모두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간행한 것이었다.²⁹⁾ 결국 『기효신서』의 수용은 조선군의 훈련과 군사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기효신서』의 체제와 내용이 병서 편찬에도 촉매작용을 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26) 송대에 曾公亮이 편찬한 것으로, 고래로부터의 전술, 전법, 용병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27) 명대에 劉寅이 『무경칠서』를 주해한 것이다.

28) 李蘊이 지은 『登壇必究』의 내용 중 중요한 병법들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29)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간행하였던 병서 10권의 목록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演機新編』, 『制勝方略』, 『兵家要集』, 『行軍須知』, 『陰雨備』, 『續兵將圖說』, 『風泉遺響』, 『肄陣總方』, 『武藝圖譜通志』, 『武藝圖譜通志診解』.

만하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은 병기와 화기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조선군은 일본군과의 전투 및 명군의 참전으로 인하여 점차 병기와 화기의 종류 및 사용 방법과 그것을 활용한 전술에 대한 이해를 늘려갔다. 특히 훈련도감의 설치 이후, 명군이 조선군의 훈련을 도왔으며, 조선군은 화약 제조와 화기사용법 대한 지식 습득에 열을 올렸다. 이 영향으로 이후 조선에서는 병기와 군사기술에 관한 병서를 출간하기 시작하였다. 1603년 간행된 『신기비결』의 경우, 임진왜란 당시 등장하였던 화기에 대한 기록과 화기의 사용법에 대한 기록 등이 그 주된 내용이다. 이후 『火炮式諺解』와 『新傳煮硝方』 등 화약과 화기 사용에 관한 병서 2권이 간행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점차 화기의 사용이 전투에 미치는 영향을 조선군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표2]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화약 및 화기 관련 병서 간행현황

근 서적명	편찬자	주요 내용	초간(년)	재간(년)
『神器秘訣』	韓孝純	임진왜란 시기 도입된 주요 화기의 제작 및 사용법	1603	
『火炮式諺解』	李 曙	화약 제작 및 사용법	1635	
『新傳煮硝方』	金持南	화약 제작법 설명	1698	1796
『射法秘傳功暇』	朝 鮮	활쏘기 설명	1739	

조선 건국 이후 전쟁사 내지는 군사사에 관한 대표적인 기록물은 『東國兵鑑』과 『歷代兵要』 2권뿐이었다. 물론 임진왜란을 겪는 도중, 전쟁을 경험한 이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문집에 남긴 기록들도 있지만, 오로지 전쟁사만을 위한 기록은 없었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제반 사항 및 전쟁에 관한 교훈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였다. 이에 왜란 이후에는 전쟁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전쟁이 주는 교훈을 전달할 수 있는 기록물들이 편찬되었으며, 무용담 및 영웅 이야기를 담고 있는 중국의 『演義』류 소설 또한 조선에서 유행하였다.

[표3] 임진왜란 전후(1392~1800) 조선의 전쟁사 기록 현황

서적명	편찬자	주요 내용	초간(년)	재간(년)
『東國兵鑑』	文宗 (御命編纂)	고조선 이후 전쟁역사 기록	1451	1608
『歷代兵要』	官撰	태조 대, 여진과의 전쟁기록	1456	
『亂中日記』	李舜臣	임진왜란 역사기록	1592	
『軍門謄錄』	柳成龍	임진왜란 시기 군사 문서 집성	1595	
『懲毖錄』	柳成龍	임진왜란 역사기록	1598	1647
				1695

5. 맺음말

건국 이후 200여 년의 평화기를 구가하였던 조선은, 重文抑武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전통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였던 국방체제를 등한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임진왜란으로 일본군의 침략에 직면한 조선은 저항을 거듭하며 반격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현저한 전투력의 차이로 인하여 효과적인 전투에 임하지 못하였다. 명군의 도움으로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기효신서』를 주요 이론으로 삼아 군사를 훈련하여 전투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물론 명군의 임진왜란 참전은 조선의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본고에서는 특히 『기효신서』의 전래 이후, 조선의 군사 분야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도 후대에 높은 평가를 받은 『기효신서』는 군사사적으로 의미가 높은 저술이다.³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임진왜란 당시와 그 이후 조선 사회에서는 『기효신서』에서 다루는 여러 종류의 훈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조선

30) 청 가경 연간, 薛大烈은 『기효신서』를 병서의 전범이라 평가하였다. 薛大烈, 『序』, 『訓兵輯要』, 曆史追學網, <http://lishi.zhuixue.net/> / 함종 연간에 沈兆沄의 평가 역시, 『기효신서』가 전범으로 여겨져 훈련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기효신서』의 군사사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沈兆沄, 『序』, 『兵武聞見錄』, 曆史追學網, <http://lishi.zhuixue.net/>

내부에서도 전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전술의 변화를 고민하면서도 조선군의 장기였던 궁술과 더불어 새로 익힌 전법의 조율과 새로 창설한 군사들과 기존의 군사들 사이에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썼다.³¹⁾ 비록 명과 조선의 군사문화에 대한 환경은 달랐지만, 조선에서는 『기효신서』를 익히기 위해 노력하였고,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도 학습을 독려했다.

4장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조선은 건국 이후 임진왜란에 이르기까지 200년 간에 병서의 수량과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단조로웠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병서에 관한 관심과 높아진 국방 안보 의식을 바탕으로 많은 병서가 간행되었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는 병서의 간행 면에 있어서는 양적 팽창을 이룬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간행된 병서의 일면을 살펴보았을 때, 많은 병서가 『기효신서』를 정본으로 삼아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기효신서』의 전래로 인하여 조선은 군사훈련과 편제 등 실제 국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병서의 편찬을 비롯한 기록물들의 편찬에도 일대 변혁을 맞이하였다. 군사사 관련 기록물들의 증가는 자연스레 국방 안보 의식이 고취되는 계기 또한 마련하게 되었다.

비록 『기효신서』의 내용이 완벽하게 조선의 상황에 적합한 병서라 할 수는 없지만, 조선 사회가 『기효신서』를 수용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조선에서는 병서가 단순히 군사기술의 집합을 넘어서 국방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그것으로 인해 국방 의식 또한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뒤로는 국방체계와 군사사상 체계 구축을 위하여 깊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기효신서』가 조선 사회에 미쳤던 영향은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선행 연구 결과가 말해주고 있듯이, 임진왜란은 16세기 말 동북아 국제질서에 영향을 주었던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로 인하여 조선, 명,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삼국은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고, 전쟁 수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가되어 백성들의 불안과 불

31) 『宣祖實錄』 권67, 선조 28년 9월 24일(癸巳).

만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인적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의 『기효신서』 전래 사례로 볼 때, 이 시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무대를 향해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문화교류의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7년이라는 전쟁 기간 동안 동아시아 국가 간에 있었던 문화교류 및 그 교류가 가지는 영향력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 『宣祖實錄』
- 郭應響, 『補釋戚少保南北兵法要略』
- 薛大烈, 『訓兵輯要』
- 沈兆沄, 『兵武聞見錄』
- 戚繼光, 『紀效新書』
- 洪承疇, 『古今平定略』
- 김성수·김영일, 「한국 군사류 전적의 발전계보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9, 1993.
- 노영구, 「선조대 기효신서의 보급과 진법논의」, 『군사』 34, 1997.
- _____, 「임진왜란이후 전법의 추이와 무에서의 간행」, 『한국문화』 27, 2001.
- 윤병태, 「조선시대의 병서 간행」, 『군사』 8, 1984.
- 윤용출, 「임진왜란 시기 군역제의 동요와 개편」, 『역사와 세계』 13, 1989.
- 陳凌·蔡藝, 「紀效新書在朝鮮半島的傳播與影響研究」, 『第十一屆全國體育科學大會論文摘要彙編』, 2019.
- 蔡藝·李青, 「紀效新書在朝鮮半島的傳播與影響-基於朝鮮漢文武籍編撰的視角」, 『山東體育科技』 第6期, 2020.
- 祁 山, 「紀效新書傳入朝鮮半島的背景及影響」, 『山東青年政治學院學報』 第5期, 2013.
- 孫衛國, 「紀效新書與朝鮮王朝軍制改革」, 『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期, 2018.
- 楊海英·任幸芳, 「朝鮮王朝軍隊的中國訓練師」, 『中國史研究』 第3期, 2013.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1592~1598), the Tradition of *Jixiaoxinshu* and Change in Military Affairs

Li, Zhaoxi*

Jixiaoxinshu is a military book compiled in the Ming Dynasty, it's abundant in content and practical and has an important position and influence in the military history of the Ming Dynasty and beyond. *Jixiaoxinshu* was sent to Joseon to fight with the Joseon Arm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mjin War:1592 - 1598). The Ming Army was introduced to Joseon, which enhanced the overall capabilities of the Joseon Army and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Joseon's military culture. Judging from the number of Joseon military books and printing times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Imjin War, it can be seen that *Jixiaoxinshu* has a great influence in Joseon. The distribu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military system have had an impact. After *Jixiaoxinshu* spread, Joseon military books have expanded in content and components, which shows the change in Joseon's military concepts and the development of Joseon's military culture.

Key words: *Jixiaoxinshu*, Joseon Dynasty, Ming Dynasty, military book, cultural exchange

논문투고일: 2021년 10월 24일 || 심사완료일: 2021년 11월 10일 || 게재확정일: 2021년 11월 19일

* China, The Yanbian University, History department (World History Major) doctoral student